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4차산업혁명 시리즈-5G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June vol.108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04 KVCA 소식

- 2017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
- 2017 제1차 LP교류회 개최
- 2017 KVCA Yearbook & Directory 발간

06 연수원 소식

- 2017년 벤처캐피탈 바이오 advanced 과정 개최
- 2017년 벤처캐피탈 스핀 아카데미 2차 - VC 관리 기초 개최
- 6월 교육 안내

08 투자협력·M&A

- 찾아가는 투자 IR
- 벤처 투자 사랑방
- M&A 활성화 지원사업

11 R&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 '16년도 기술혁신 투자 연계 과제 적격 투자 이행 여부 확인
- '15년도 창업 성장 투자 연계 멘토링과제 주요 재무·경영 상황 점검 결과 보고

14 회원사 소식

15 투자 유망 기업 탐방

- 쉐링크(주)

16

이슈 ISSUE

18 4차산업혁명 시리즈-5G

20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24 벤처캐피탈 법률 Q&A

25

시장 동향 Market Trend

26 4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32 (VC포커스) 글로벌 벤처캐피탈 현황

38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발행일 2017년 6월 10일(통권 108호 6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김형수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뉴스 & 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2017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

본회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17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협회 회원사 중심의 VC 대표이사,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LP 담당자 등 총 70여 명이었다. 본회 이용성 회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업계에는 더욱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등 외부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신규 투자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본 행사인 18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신영근 충남대학교 교수,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

표가 강연자로 초청되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와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ICT 산업의 역할', '초기 바이오벤처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한중 VC 공동 사모펀드 설립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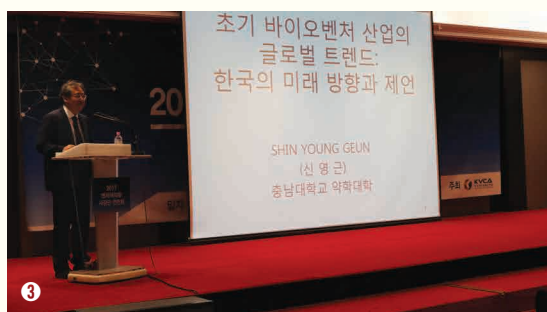
연찬회에 참석한 협회 회원사 대표는 "업계 지속성장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①



②



③



④



⑤

- ① 인사 말씀 - 이용성 회장
- ② 특강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
- ③ 특강 2.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신영근 교수
- ④ 특강 3. 한국대성자산운용 이규엽 대표
- ⑤ 벤처캐피탈 사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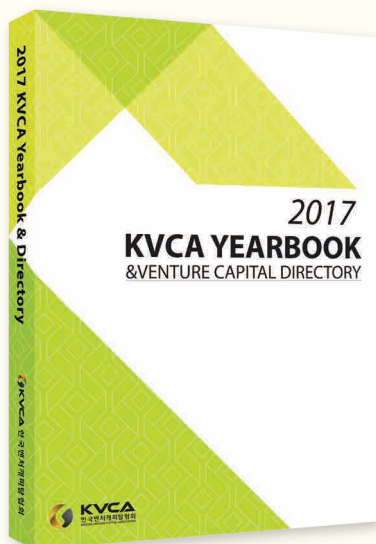
2017 제1차 LP교류회 개최

지난 5월 25일(목) 서초동에서 2017년도 제1차 LP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LP교류회에는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통신자연합회, 공제회 등 주요 LP 18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VC 동향, 2016년 창투자 경영성

과, 창투자 우선순실총당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이후에서 국내외(미국) 세컨더리 펀드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 KVCA Yearbook & Directory 발간



본회는 벤처캐피탈 업계 연감인 '2017 KVCA Yearbook & Directory'를 발간하였다. 연감은 국내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제반 통계자료를 집대성하여 벤처 투자시장의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 자원, 창업 투자 현황, 조합 현황, 투자 실적, 투자 기업 가치평가, 회수 현황, 해산 조합 수익률, Directory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감은 국내 GP, LP, 정부 단체, 기타 유관 기관 등에 약 500부가 배포되었다.

연수원 소식

「2017년 벤처캐피탈 바이오 어드밴스드 과정」 개최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밀한 진단을 받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헬스케어 기술을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최되었다.

바이오 투자 담당자와 바이오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4차산업혁명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변화와 각 바이오 분야별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일자:** 2017년 5월 23일(화) ~ 5월 26일(금) (4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4차산업혁명과 바이오산업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유승준
의료기기 개발 현황 및 전망	삼성서울병원 사업화추진팀 교수/팀장 류규하
바이오와 3D 프린팅	로킷 대표 유석환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기술 동향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유승권
정밀의료를 위한 임상-유전체 정보의 활용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 박웅양
AI 기반 의료기기 산업 및 전망	JLK인스펙션 박사 김동민
진단 시장과 기술 트렌드	수젠텍 대표 손미진
글로벌 신약 기술 이전 사례	동아ST 연구본부 전무/본부장 윤태영
VC 투자 유치 사례	젠큐릭스 대표 조상래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 포인트	오름테라퓨틱 대표 이승주
바이오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권인호
초기 바이오벤처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 한국의 미래 방향과 제언	충남대학교 약학과 부교수 신영근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부사장/CTO)



「2017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2차 - VC 관리 기초」 개최

금번 스팟 아카데미는 벤처캐피탈 기획·관리 부서 신규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 개요부터 조합 회계 처리 실습까지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

되었다. 다음 스팟 아카데미는 올해 마지막 차수 교육으로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일자: 2017년 5월 30일(화) (1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개요 • 벤처캐피탈의 이해 • 국내 벤처캐피탈의 구분과 역할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벤처캐피탈 조합 개요 • 벤처캐피탈 조합의 이해 • 벤처캐피탈 조합의 구분 및 운용에 대한 이해	
벤처캐피탈 업무 구성 및 역할 • 심사 부서와 관리 부서의 이해 • 관리 업무와 업무 처리 방법	MIRA Partners 대표 박미라
벤처캐피탈 조합 운영과 행정 업무 • 조합 결성 및 운영 • 조합 해산 및 분배/세금	
벤처캐피탈 회사 및 조합의 회계 처리 • 계정과목의 이해 • 회사 및 조합 결산 실습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부장 황유진



(6월 교육 안내)

- 교육 명 2017년 제22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 운영 형태 5박 6일 합숙 / 3일 출석
- 일 자 6월 19일(월) ~ 24일(토) / 6월 28일(수) ~ 30일(금)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 관련 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인력 양성 교육
- 신청 기한 5월 26일(조기 마감됨)
- 신청 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투자 협력·M&A

찾아가는 투자 IR

Ⅰ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 결과

본회는 지난 5월 전국 3개 지역(광주, 경기, 충북)을 순회하며 총 3회 〈찾아가는 투자 IR〉을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투자 IR〉은 수도권-지방 간 벤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청장과 VC 대표가 직접 투자 설명회 심사인으로 기업피칭을 평가하였고, 특히 찾아가는투자 IR(광주·전라)에서는 VC 대표 몇몇이 우수 기업에 투자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본 행사에는 지방 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 총 350개사, 벤처캐피탈 200개사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 회 엄선된 10개사 IR 피칭, 벤처

캐피탈 20여 개사와 중소기업 30개사와의 투자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본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수도권-지방 간 벤처 투자의 불균형 해소와 전국 벤처 투자 붐 확산을 위해 투자 기관에 유망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벤처캐피탈 산업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의 벤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업계의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심사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5. 11 광주, 전라-광주과학기술원(GIST)



• 5. 18 서울, 경기-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5. 25 충북, 강원-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벤처 투자 사랑방

5월 벤처 투자 사랑방 개최

협회에서는 투자에 입문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 역과 투자 절차나 전략 및 자료 작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에는 유망 기업 발굴을, 초기 기업에는 성장을 지원

하는 벤처 투자 사랑방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지난 5월 23일에 개최된 사랑방에는 중소기업 7개사와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벤처 투자 사랑방 안내 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협력·M&A

M&A 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도 2차 M&A 지원센터 간담회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17년도 2차 M&A 지원센터 간담회가 5월 2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M&A 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9개 기관, 12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업진단비용 선정 심의, M&A 뉴스레터 발간, 테마별 M&A 매칭행사, M&A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진단비용 선정 위원회를 통해 M&A 성사 기업 3개사가 기업진단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M&A 뉴스레터, 테마별 M&A 매칭데이 등 지원센터 간 M&A 관련 협업을 강화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및 건전한 벤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7년 5월 현재 M&A 거래정보망 등록 DB 건수는 약 3,500여건으로 매월 50건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 130여 개의 M&A 전문 자문 기관이 M&A 희망 기업 정보 제공, Deal 추진, M&A 자문·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M&A 인프라 구축을 통해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VC 구조 유통망 연계, M&A 거래 정보망 신규메뉴 개발 등 지속적인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본회는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 중 R&D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의 접수 기간 동안 총 68개사가 R&D과제를 신청했다.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사 내외가 선정되면 2년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

업청 신규 사업인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은 우수 VC 투자 기업 및 지역별 핵심 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과제 지원 외에 해외마케팅, 인재 유입, 디자인, 해외 특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회는 운영 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2017년 5월 CEO 조찬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17일(수)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중소기업청 투자 연계 R&D과제 우수 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을 리딩하는 중국(연사: 정주용 비전크리에이터 대표이사)'을 주제로 하여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IT산업 등의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민간 주도(Private Driven)의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통해 인터넷 플러스 정책, 스마트 제조, 모바일과 연결된 레스토랑 및 고급 택시, 안면 인식 및 신용 조회 기술, IoT와 연계된 전력계량기, 모바일 기반 자전거 대여 서비스, 드론을 이용한 산간 지역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산

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 분야 및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으로는 스타트업 기업문화로의 변신 및 완벽주의, 인류를 향한 비전을 가질 것, 본연의 사업과 투자의 경계를 가지지 않는 유연한 자세 등을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CEO 조찬 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 분야 명사 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중순 투자 연계 과제 선정 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다음 조찬 세미나는 6월 중순 라마다호텔 스위트 서울 남대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D사업

'16년도 기술혁신 투자 연계 과제 적격 투자 이행 여부 확인

본 회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R&D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운영 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년도 선정 기업 중 1차년도 R&D사업 기간 동안 VC 등으로 부터 투자 유치를 완료한 26개사를 대상으로 적격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2016년 사업 기준)

투자 유망 품목 발굴

[2015. 10~12]



VC 중심의 과제 발굴 TF에서
투자 유망 전략 제품 발굴·추천

공고 및 선정 평가
(투자유망품목 R&D과제)

[2016. 01~04]



투자 유망 전략 제품 R&D과제
모집 및 선발 평가

R&D 개발

[2016. 04~2017. 04]



투자유치 성공시
(미완료시 과제종료)
협회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개발

[2017. 04~2018. 04]



협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후 지원 프로그램

[2018. 04~2019. 04]



경영 및 재무 현황 점검
투자금 실사 등

투자 유치
기업 현황

투자 유치 기업

바이오·의료 8개사(30.8%)

전기·전자 8개사(30.8%)

정보통신 5개사(19.2%)

기계·소재 2개사(7.7%)

화학 1개사(3.8%)

에너지·자원 1개사(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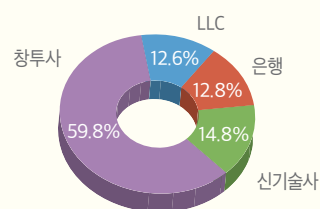
지식 서비스 1개사(3.8%)

기술 분야

민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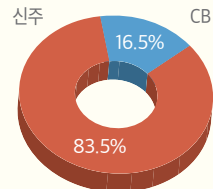
투자금 규모

※ 기업별 평균 정부 지원금: 5.1억 원



투자 기관 유형

(투자 금액 기준)



투자 유형

포 트
폴 리 오

바이오 / 의료



정보통신



전기 / 전자



화학



에너지 / 자원



기계 / 소재



지식서비스



※ R&D과제의
기술 부문별 분류

'15년도 창업 성장 투자 연계 멘토링과제 주요 재무·경영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본회는 '15년도 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 투자 연계 멘토링과제 수행 기업 59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재무·경영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건전한 경영 활동 및 재무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술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개발 기간(2년)을 포함하여 3년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

사후관리 보고
대상 기업 파악



사후관리 보고
안내 공문 발송



유선 안내
활동



사후관리 보고
이행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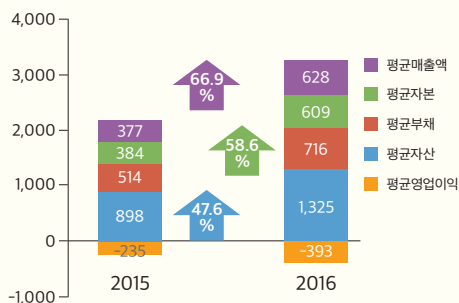


보고
사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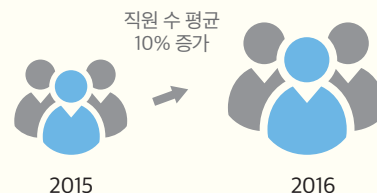


전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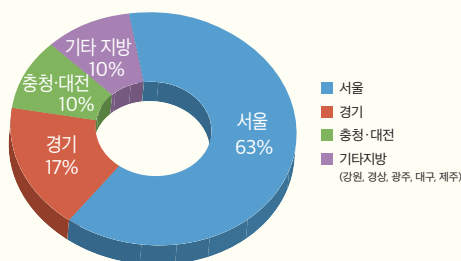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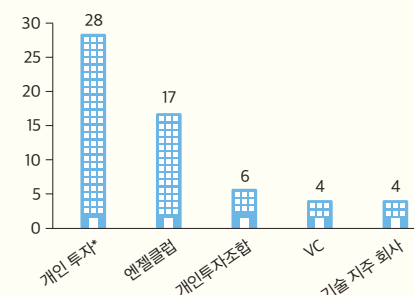
직원 수 감



지역 별 현



투자 회사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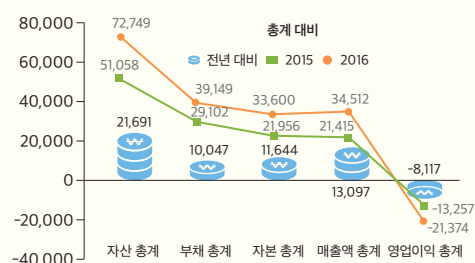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2년 이상(총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1년간 1억 원 이상의 신주 투자 실적을 보유한 자

후속 투자 유치 현황



연도별 현황 (총 계)



KVCA

회원사 소식

대교인베스트먼트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3년 연속 흑자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1억 7,600만 원의 영업수익과 19억 2,2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95.4%, 영업이익은 212.5% 증가했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4억 6,400만 원에서 15억 4,600만 원으로 233.2% 늘어났다.

마그나베스트먼트

‘마그나 포커싱 펀드’를 통해 코넥스 상장사 관악산업에 31억 원을 투자했다. 펀드는 코넥스 상장사를 주 투자처로 삼으며, 관악산업은 1998년 설립되어 수중, 항만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각종 전문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서울투자파트너스

지난해 매출액 3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26억 원)보다 27%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설립 초기(10억 원)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송현인베스트먼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세컨더리펀드를 결성하고 운용에 나섰다. 300억 원 규모의 ‘2016 KIF-송현M&A·세컨더리 ICT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였으며 KIF가 170억 원을 출자해 앵커 유한책임 출자자로 참여하였고 대표 펀드매니저는 이영수 대표가 맡았다.

스톤브릿지캐피탈

‘스톤브릿지성장디딤돌투자조합’과 ‘2015 KIF-스톤브릿지 IT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여성 쇼핑몰 모음 애플리케이션 지그재그의 개발사 크로키닷컴에 투자했다. 지그재그는 2015년 6월 출시된 후 10개월 만에 월 이용자 100만 명·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월 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주아이비투자

지난해 성공적인 조합 청산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 해 동안 거둔 매출 규모가 회사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매출 총합에 육박했다. 넷게임즈에 투자한 M&A조합의 성공적인 청산에 따른 결과이다.

에스비아인베스트먼트

‘SBI 크로스보더 어드벤처 펀드’를 결성했다. 81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이 펀드의 주요 출자자는 산업은행으로 총 400억 원을 출자했다. 한편 글로벌 도약을 위해 BH(Bio & Healthcare)투자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벤처 투자 1·2본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엠벤처투자

430억 원 규모의 ‘2010KIF-엠벤처IT전문 일자리창출투자조합’을 이르면 상반기 중 청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아 있는 자산은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는 등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투자 자산은 원금 기준으로 1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코스닥 상장사 아이지스시스템(옛 경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주주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 상실된 보유 지분의 기회손실과 위약벌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 투자 전문회사’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덴플렉스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2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2015년 설립된 덴플렉스는 신개념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업체이다. 또한 미국 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전문 기업 르 토트에 ‘한국 투자 핵심 역량 레버리지 펀드’와 ‘한국투자벤처 15-3호’, ‘한국투자벤처15-4호’ 등을 통해 30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를 투자했다.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현대기술투자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한국정보화진흥원 4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 빌딩M 5층
	TEL : 02-728-8990 / Fax : 02-728-8999	

투자 유망 기업 탐방

첨단제조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 ‘씰링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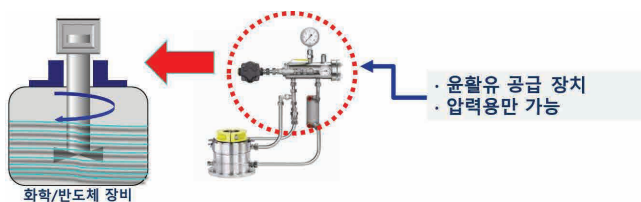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 기업은 세계 최초로 무윤활 방식 회전축 밀폐 장치와 실시간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 첨단 제조 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 ‘씰링크(주)’입니다.

밀폐 장치란 화학탱크에서 화학물질을 혼합할 때 회전하는 축과 탱크 사이의 틈새로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석유화학, 반도체, 의약 및 제약 산업 등에 두루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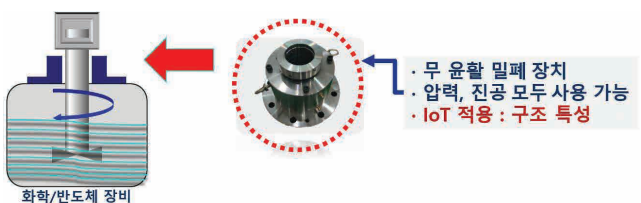
뿌리기술로 첨단 제조 부품 산업을 이끌다

씰링크 제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윤활유 공급 장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윤활유는 다른 화학물질과 만나게 될 경우 오염과 폭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무윤활 방식의 밀폐 장치는 윤활유 누출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안전한 제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씰링크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기존 사용 패턴의 변화없이 혁신을 이끌어 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제조산업을 구축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기존 밀폐 장치의 문제점: 윤활유 사용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 내재



● 씰링크 무윤활 밀폐장치 특징: 윤활유가 필요 없음



● 제품의 경쟁력

	기존 제품	씰링크 제품
윤활유	사용	무윤활
가격	고비용 구조	합리적 구조
IoT 적용	어려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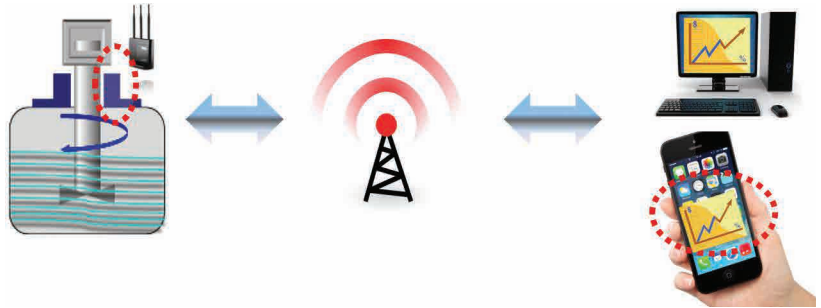
회전축 밀폐 장치는 화학 장비, 반도체 장비, 일반 산업 장비 등에 사용되어 핵심 요소를 연결하고 밀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제품에는 ① 메카니컬씰과 ② 마그네틱씰이 있는데, ① 메카니컬씰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제약 분야 등에 사용됩니다. ② 마그네틱씰은 진공 누출 방지용 반도체, LCD, OLED 등에 사용됩니다. 씰링크는 ①+②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기에 산업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씰링크는 IoT를 융합한 ‘실시간 누출 감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토탈 안전 솔루션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분야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 누출 폭발사고를 1/10로 줄여 친환경 첨단제조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무연활 밀폐 장치 + IoT

센싱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누출 감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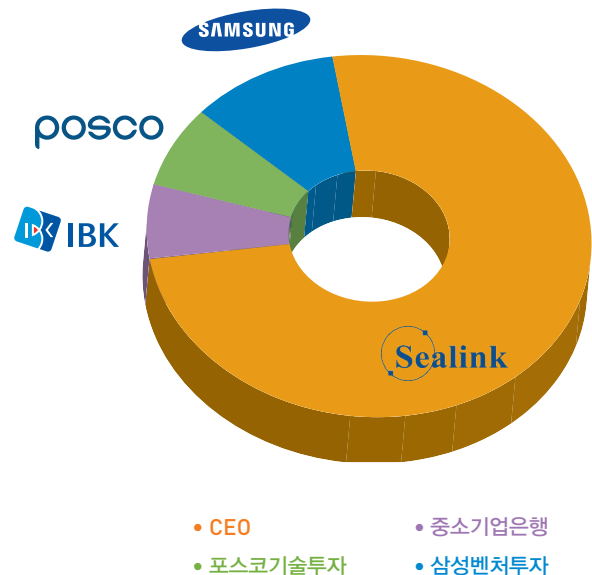
셀링크는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ISO 9001, ISO 14001을 인증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하여 무연활 밀폐 장치와 IoT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 및 미국, EU, 일본,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반도체대전을 시작으로 미국 Semicon West, 일

본 Semicon Japan, 중국 심천 하이테크 페어, 2017년도에는 중국 Semicon China에 참가하였습니다. 노력의 결과 현재 주요 거래처로는 인텔, 삼성전자가 있으며,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반도체시장과 아울러 석유화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석유화학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2-way 전략으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혁

2014. 03.	법인 설립
2014. 06.	IP R&D사업 (ICT 융합)
2014. 09.	ICT 재도전 단계별 R&D 지원사업
2015. 03.	삼성전자 양산라인 공급
2015. 06.	벤처기업 인증
2015. 09.	미국 인텔 양산라인 공급
2015. 12.	사업화 연계 R&D사업
	ICT 유망 기업 인증: K-Global 300
	벤처기업협회 IR Demo Day : 최우수상
	K-ICT 투자 유치 IR Demo Day : 최우수상
2016. 02.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유체셀링크기술연구소
2016. 05.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2016. 08.	미국 수출
2016. 09.	서울형 강소기업
2017. 02.	IP R&D 사업 (ICT 융합)

● 셀링크 주주 현황



※셀링크 주식회사는 201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선정 기업입니다. 양산화를 위해 추가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 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셀링크(주) 이희장 대표이사(02-866-873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이슈

ISSUE

4차산업혁명 시리즈-5G

5G 그리고 Soft Infra에 따른 변화



육기상
KT 융합기술원 팀장

최근에 매우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4차산업혁명’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관점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의 의미를 살펴보고, 5G의 핵심 기술 요소인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의 특성과 이로 인한 산업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을 초에 본 지 뉴스레터에서 이희우 대표의 “제4차산업혁명을 대하는 VC의 자세”에서도 언급됐듯이, 2016년 다보스포럼은 제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메카트로닉스,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신소재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컴퓨팅 등을 지목했다. 그 기반 위에서 5G를 필두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응용 기술이 더해진다. 이처럼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실질(Physical)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융합된 모습을 4차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실질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완벽한 연결과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실질 세계의 공간은 지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크기 등에 있어서 접근이나 관찰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 세계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사이버 세계에 표현하고, 실질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완벽하게 연결

하여 사이버 공간을 제어하고, 이렇게 변경된 사이버 공간의 정보는 다시 실질 공간으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실질 공간의 지리적인 거리나 물리적인 크기 등에 따른 제약을 극복할수 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실질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완벽한 연결은 가장 중요하며, 초연결(Hyper connected)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지난 20년을 ICT시대로 부르고, 향후 20년을 MICT (Mechatronics ICT)시대로 부른다. ICT시대 연결의 대상은 사람이라면, MICT시대는 다양한 메카트로닉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실질 세계의 정보를 사이버 세계로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IoT로 대표되는 정보 수집 및 제어용 메카트로닉스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백만 개의 단말을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연결 (Massive Connectivity), 이동통신에서 GIGA급의 초고속 전송(Big Pipe),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초저지연(Low

latency) 전송을 제공하는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신 인프라를 기존 4G 통신 기술인, LTE로 제공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이동통신의 주요 요소는 단말, 무선 신호 처리(Radio Unit) 및 데이터화(Data Unit)하는 기지국, 인증과 상호 연결을 제공하는 코어망(Core Networ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통신 기술은 세대(Generation)로 구분되는데, 다음 세대로 진화할 때마다 새로운 주파수와 radio access 기술(RAT)과 코어망(RAN/Core)의 개선을 통해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G는 아날로그 셀룰러 통신이며, 2G는 디지털 셀룰러 통신으로 모두 음성 서비스가 중심이며, 3G는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전 세계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를 통한 글로벌 로밍을 제공했다. 4G(LTE)부터는 코어망이 통합되어 서로 다른 RAN들(2G/3G/4G/non-3GPP)이 코어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5G는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및 SDN(Software Defined Network), 클라우드 등의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RAT, RAN, 코어망이 같은 범용 서버 위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화를 기반으로 통신 인프라가 IT화되고, 이에 따라 5G 생태계는 기존의 통신 외에 IT, IoT 등 ICT 전반으로 확장된다.

소프트웨어화를 통한 범용 서버상의 가상화의 장점은 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 진화/업그레이드의 용이성 이외도 서비스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특성이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다. 기존 LTE 이동통신 인프라는 통화와 데이터 전송 등의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단일 이동통신 인프라에서 실행된다. 즉, 초저지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 간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모두 단일 이동통신 인프라에서 섞여서 전달된다. 하나의 단일망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최상위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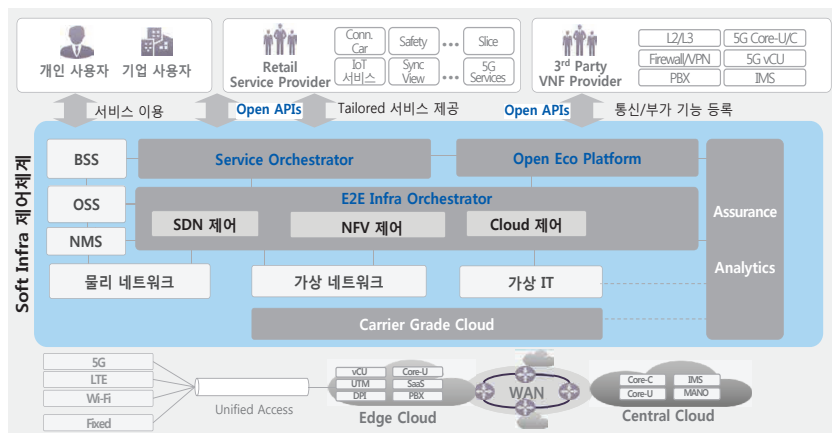
국(RU/DU), 코어망의 배치 및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의 증대와 구성/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범용 서버상에 제공할 각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맞는 가상화 기반 통신 인프라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초저지연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5G 인프라를 전국에 분산된 클라우드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사용자 단말에서 코어망까지의 전송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제공하고, IoT 서비스와 같이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대규모의 연결이 필요한 인프라는 제어플랜(control plane) 용량을 강화시킨 저렴한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각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5G 인프라에서는 사용자 단말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여러 네트워크 슬라이스 중에서 최적의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기능, NSSF(Network slice supporting function)이 정의되어 있다. 이를 통해 5G 단말에서 홀로그램의 대용량 서비스, 문자 전송, 자율 주행 자동차 서비스 등에서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5G에서 가상화를 통한 또 하나의 특성은 산업계의 특화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네트워크 제공을 자동화할 수 있다. 즉, 통신 사업자는 각 기업의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필요할 때 그 만큼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Open Eco Platform으로 다양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Orchestrator로 불리는 제어체계를 통해 가상화 기반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생성을 자동화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5G의 가상화 특성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적인 실질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완벽한 연결을 위한 통신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실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네트워크 구조 및 Soft Infra 제어체계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7. 5. 1. 박정 의원 대표 발의)

제안 이유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공개 투자자 모집이 아닌 사모의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이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함
- 이에 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수 투자자가 소액의 출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 대상 기업을 미리 선정하여 펀드를 결성할 경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공모창업투자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제도적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일정 수 이상의 다수 투자자가 창업자에 투자하여 성과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지

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등록에 필요한 출자 금액·조합원 수 등의 등록 요건과 절차, 조합원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 공모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 투자 의무 및 금지 행위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3)
-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경우로서 파산, 조합원 동의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4)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사유로서 존속 기간 만료, 유한책임 조합원 전원 탈퇴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5)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재산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 개인 등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감면 등 조세 특례 조항을 둠(안 제30조의8)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때, 투자 업무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등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등록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합 등록 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제2조(정의)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이란 일정 수 이상의 다수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6.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② (생략)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용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개인투자조합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3장의2 공모창업투자조합
<신설>	제30조의2(조합의 결성 등) ①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개인투자조합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신기술사업금융업자 5. 엑셀러레이터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투자자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 대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목록,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출자 지분 및 존속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투자자의 권리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 6.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한 인력 또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마케팅·컨설팅 나. 회계 및 법률 지원 서비스 7. 공모창업투자조합과 조합원 간, 특정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공모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0조의3(업무의 집행 등) ①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자금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공모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공모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30조의4(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라면 공모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p><u>〈신설〉</u></p>	<p>제30조의5(해산) ①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존속 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p>②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청산과 채무 변제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u>〈신설〉</u></p>	<p>제30조의6(기타 준용규정) 조합의 재산 관리·운용, 결산 보고, 조합원의 지분양도, 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 말소, 재산 보호, 수익 처분, 공시에 관하여는 각각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공모창업투자조합"으로, 제23조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8조 중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각각 본다.</p>
<p><u>〈신설〉</u></p>	<p>제30조의7(「상법」의 준용)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한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30조의8(조세에 대한 특례)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 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업상당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 운영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제21조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및 투자자의 무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생략) ②·③ (생략) 	<p>제40조(보고와 검사) ①</p> <p>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p> <p>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공모창업투자조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 또는 제30조의3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p>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② 제1항의 조치는 제43조제6항의 조치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생략) 	<p>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p> <p>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p> <p>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p>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략) 	<p>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10. (생략)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 	<p>8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3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p> <p>9. 10. (현행과 같음)</p> <p>11.</p> <p>위반한 때</p>

[illegible]

벤처캐피탈 법률 Q&A

소수주주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투자자가 소수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내용

1. 소수주주권이란 단독주주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는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 제한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펀드가 소수주주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수주주권의 종류를 개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수주주권의 종류

종류	소유 주식 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0분의 1 이상 (상법 제403조)	10,000분의 1 이상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주주제안권	100분의 3 (상법 제363조의2)	1,000분의 10(또는 5 ¹⁾)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366조 제1항)	1,000분의 15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466조 제1항)	1,000분의 10(또는 5 ²⁾)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이사 해임 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385조 제2항)	1,000분의 50(또는 25 ³⁾)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청산임 해임 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539조 제2항)	1,000분의 50(또는 25 ⁴⁾)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100분의 1 (상법 제402조)	100,000분의 50(또는 25 ⁵⁾)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업무 재산 상태 검사 청구 (검사인 선임 청구)	100분의 3 (상법 제467조 제1항)	1,000분의 15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집중투표청구권	100분의 3	100분의 1
해산판결청구권	100분의 10	

2. 상법은 회사법의 대원칙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회사 일정 주주에게 경영간섭 내지 경영통제가 가

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만 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권리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의 보유 주식비율을 낮추어 행사 요건을 완화한 반면, 비상장회사에는 없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4. 이하 3회에 걸쳐 소수주주권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 1)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2)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3)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4)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5)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A blurred background image of a business meeting. Several people in white shirts are seated around a table, looking at and pointing to various documents. The documents feature several blue pie charts and bar graphs, suggesting a financial or market analysis presentation. A teal diagonal overlay covers the right sid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itle text.

시장 동향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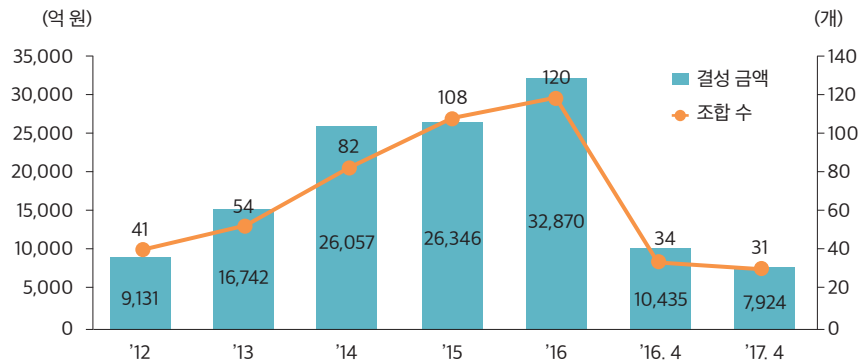
4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2017년 4월에 7개 조합(창투조합 4개, KVF 3개)이 1,212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4월에는 총 183건(116개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투자 금액은 1,933억 원으로 전년 동월(2,103억 원) 대비 170억 원(8.1%) 감소
- 4월 회수는 장외 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가 70.0%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 비중이 12.7%를 차지

투자 자원

조합 결성

- 금년 4월까지 31개 조합, 7,924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34개 조합, 10,435억 원) 대비 신규 결성 조합 수는 3개(8.8%) 감소, 결성 금액은 2,511억 원(24.1%)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4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법인 14.8%, 벤처캐피탈이 11.5%, 성장사다리를 포함한 기타 단체 10.0%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 출자자 비중이 59.0%로 전년 동기(66.6%) 대비 7.6%p 감소한 수치다.

[illegible]

4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이노폴리스

이노폴리스파트너스는 공공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펀드를 결성했다. 주 목적 투자 분야는 연구소 기업과 기술 지주 회사의 자회사로 정부 출연 연구소 등 공공 연구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이다.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주 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을 전국 연구개발특구 5개 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던 초기 기업들에 지속적인 성장 연계를 할 예정이다.

송 현

송현인베스트먼트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했으며, 이 펀드는 모태펀드 3월 수시 출자사업의 운용사로 선정되어 결성한 펀드이다. 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는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정보 보안 등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다.

엠 지

엠지인베스트먼트가 IBK캐피탈과 공동 운영하는 순수 민간 자금 기반의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 펀드는 기업 공개(IPO)를 1~2년 앞둔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될 계획이며, 특히 바이오 및 헬스케어, 전기차, 핀테크, 반도체 장비 등의 분야를 잠재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 2017년 4월에 7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세컨더리 펀드 2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 금액별로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의 '이노폴리스 공공 기술 기반 펀드'가 501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송현인베스트먼트의 '2016KIF-송현M&A·세컨더리ICT투자조합', 엠지인베스트먼트의 'IBKC-MGI신성장특화pre-IPO펀드'가 각각 300억 원, 20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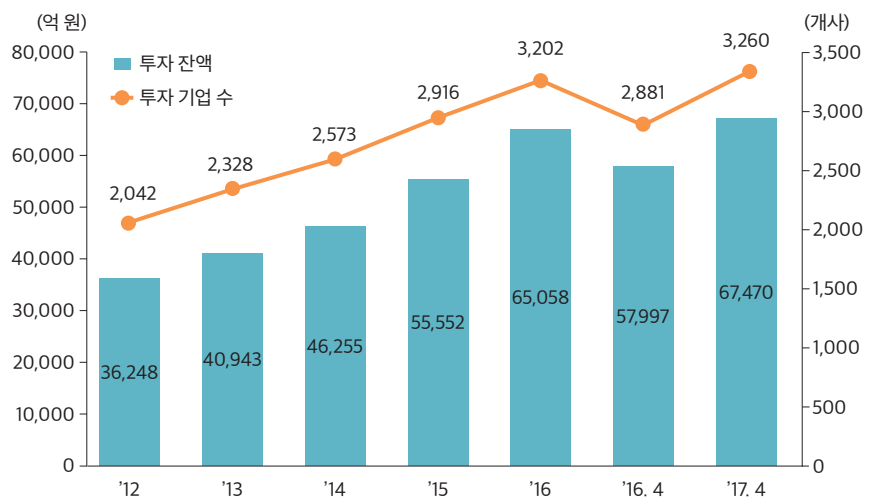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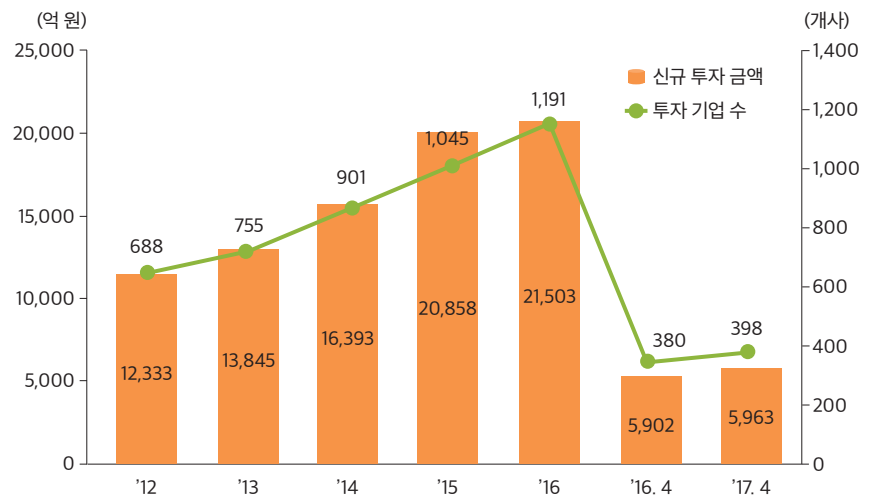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큐브벤처파트너스	창투 조합	큐브그로쓰제1호투자조합	51	일반	중소· 벤처 일반
엠지인베스트먼트	창투 조합	IBKC-MGI신성장특화pre-IPO펀드	200	일반	중소· 벤처 일반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창투 조합	보스톤성장지원3호투자조합	20	일반	중소· 벤처 일반
화이인베스트먼트	창투 조합	화이-코바코콘텐츠투자조합	30	문화	문화 기타
이노폴리스파트너스	KVF	이노폴리스공공기술 기반 펀드	501	일반	중소· 벤처 일반
송현인베스트먼트	KVF	2016KIF-송현M&A·세컨더리ICT 투자조합	300	일반	IT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KVF	POSCO-SGIFalcon제약바이오 Secondary조합1	110	일반	중소· 벤처 일반

4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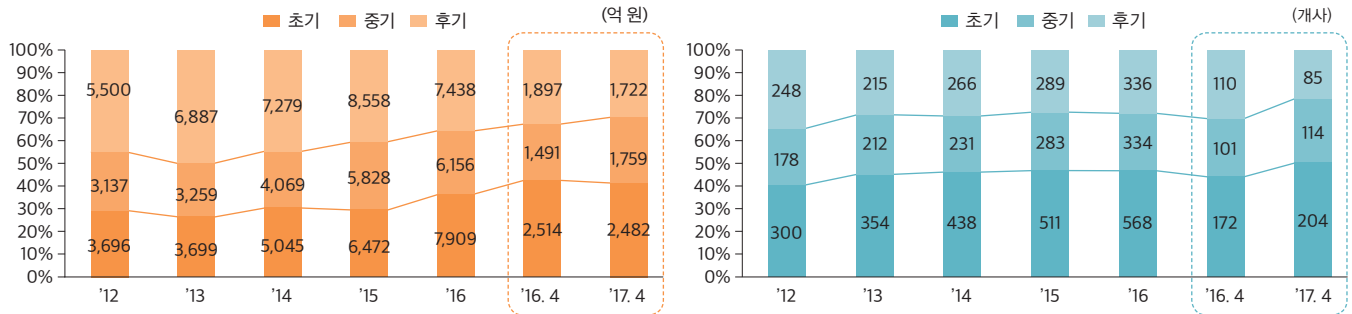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 금년 4월까지 신규 투자는 5,96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02억 원)보다 1.0% 증가하였고, 투자 업체 수는 398개로 전년 동기(380개 사) 대비 4.7% 증가하였다.
- 4월에는 엑소코바이오가 1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블랭크 티비, 바이오노트, 바디텍메드, Social Finance, Paktor Pte.,Ltd, 피피비글로벌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4월까지 3,260개 업체에 6조 7,47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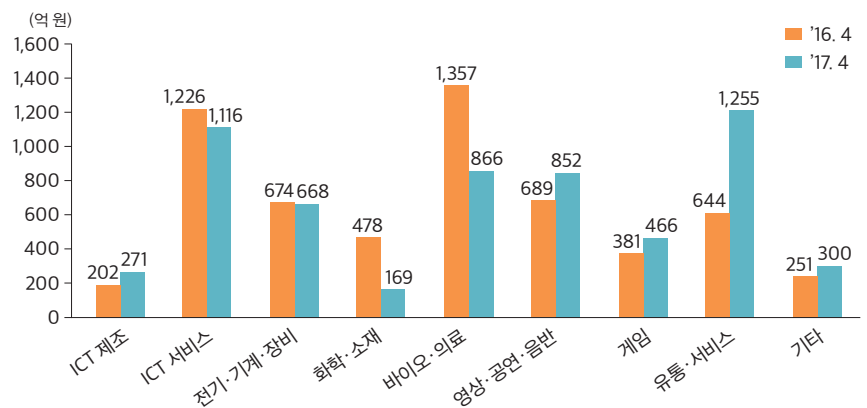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 투자

- 금년 4월까지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이 41.6%로 가장 컸으며, 중기 기업 29.5%, 후기 기업 28.9% 순으로 투자되었다.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1,255억 원, ICT 서비스 1,116억 원, 바이오/의료 866억 원, 영상/공연/음반 852억 원 순으로 신규 투자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61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491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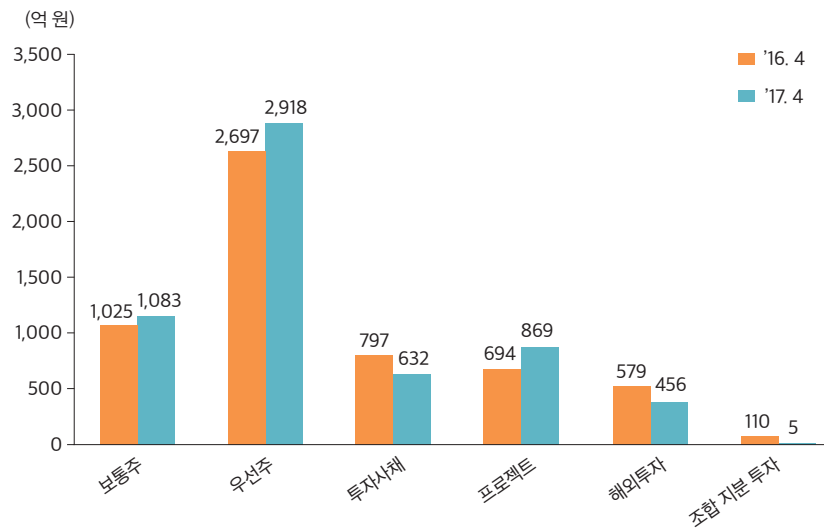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4	2017. 4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202	271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1,226	1,116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674	668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478	169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1,357	866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689	852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381	466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644	1,255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251	300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5,902	5,963

4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 투자

- 투자 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2,918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1,083억 원으로 18.2%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3억 원 감소하였다.
- 우선주 투자가 전년 동기(45.6%) 대비 3.3%p 증가한 48.9%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4.6%로 전년 동기(11.7%) 대비 2.9%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7.6%로 전년 동기(9.9%) 대비 2.3%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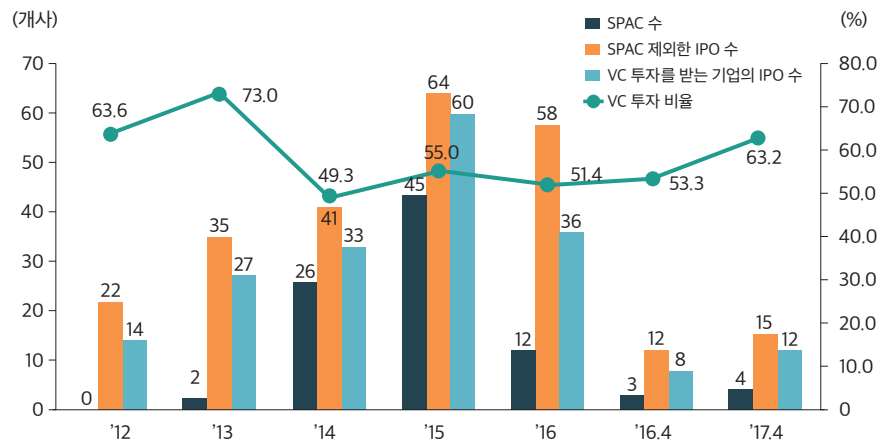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4	2017. 4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1,025	1,083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2,697	2,918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797	632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694	869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579	456
조합 지분 투자	0	0	0	152	271	110	5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5,902	5,963

- 지역별로는 서울(55.7%)을 비롯한 수도권(78.2%)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7.4%, 5대 광역시 6.7% 등의 순이었다. 해외 기업에도 22개사 456억 원(7.7%)이 투자되었다.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4월까지 회수 원금은 2,097억 원이며, 그중 장외 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50.0%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0.1%, IPO 17.6%였다.
- 특히, 4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82건의 거래를 통해 290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 매각을 통한 회수가 250억 원(8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 상환을 통한 회수가 24억 원(8.3%)이었다.
- 4월에는 코스닥시장에 6개사(이엘피,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 인수 목적, 에이피시스, 와이엠티, 케이비제11호 기업 인수 목적, 하나머티리얼즈)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4개사(이엘피,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 인수 목적, 와이엠티, 하나머티리얼즈)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4	2017. 4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1,144	370
M&A	72	22	163	150	329	41	104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756	419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884	790
	채권	1,165	1,025	1,311	1,045	272	258
기타	188	736	217	342	476	100	156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3,197	2,097

(VC 포커스) 글로벌 벤처캐피탈 현황

글로벌 VC 업계는 20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펀드 결성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VC펀드 레이징 자금이 증가하면서, 과거 북미가 독보적으로 차지했던 글로벌 VC시장 양상을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 지역은 VC의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거래 활동 및 펀드 성과, Dry powder(투자 대기 자금) 등은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회수시장에서는 북미 지역이 2017년 전체 회수 금액에서 80%를 차지하였다.

※ 자료: Preqin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POTLIGHT “Global Venture Capital Overview”

투자 자원

북미 지역 투자펀드가 VC 펀드레이징 시장을 지속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매니저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미,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 펀드가 2016년 전체 최종 결성(Final close) 펀드 금액에서 각각 61%, 13%, 23% 및 3%를 차지하여 지역별 시장 점유율이 2014 년과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 (북미) 2016년 255개 펀드가 최종 결성되었고, 최종 결성 금액은 350억 달러임, 캘리포니아 지역 펀드가 북미 전체 최종 결성 펀드에서 230억 달러(66 %)를 차지함
- (유럽) 2016년 59개 펀드가 최종 결성되었고, 최종 결성 금액은 73억 달러임
- (아시아) 2016년 84개 펀드가 최종 결성되었고, 최종 결성 금액은 130억 달러이며, 중국이 63억 달러로 아시아 전체의 47%를 차지함
- (기타 지역) 2016년 이스라엘과 호주를 중심으로 28개 펀드, 19억 달러가 최종 결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은 9개 펀드에서 9억 달러를, 호주는 6개 펀드에서 5억 달러를 결성함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평균 펀드결성 규모는 지난 7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Fig.3). 아시아 지역 펀드가 2.51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유럽 지역 펀드는 2.12배가 증가하였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종 결성된 펀드는 97개, 금액은 130억 달러다. 북미 지역 펀드의 경우 올해 결성된 펀드 수와 그 금액에 있어서 전 세계 펀드의 2/3를 차지하였다. 유럽은 13개 펀드가 최종 결성되어 23%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는 16개의 펀드(13%)가 결성되었다. 현재와 같은 결성 추세가 지속된다면, 모든 지역의 전체 펀드 결성 수가 2016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15년, 2016년의 VC 펀드 결성 추세를 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은 펀드의 결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성 금액에 있어서는, 총 1,320억 달러를 약정한 기존 995개의 펀드가 기 납입한 360억 달러 이외의 금액을 올해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결성 금액은 과거 2년 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 펀드수에서 19%만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펀드가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약정 금액(630억 달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많은 펀드 수(554개)를 차지한 북미는 480억 달러의 펀드 약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140개 펀드)과 기타 지역(108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Fig. 1 : 최종 결성 펀드 현황(결성 조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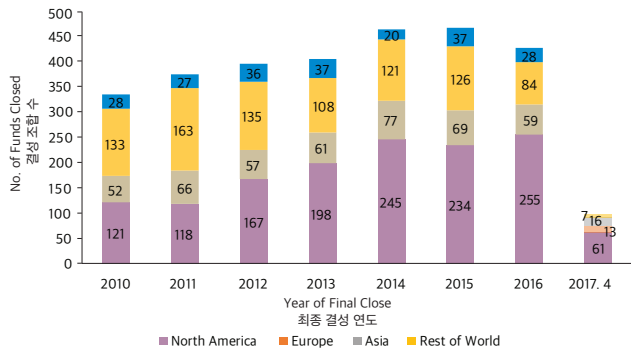


Fig. 2 : 최종 결성 펀드 현황(결성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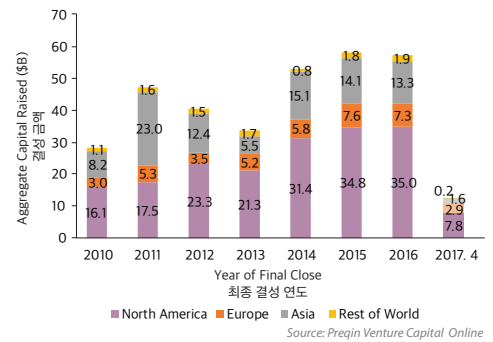


Fig. 3 : 주요 지역별 평균 펀드 규모(2010 V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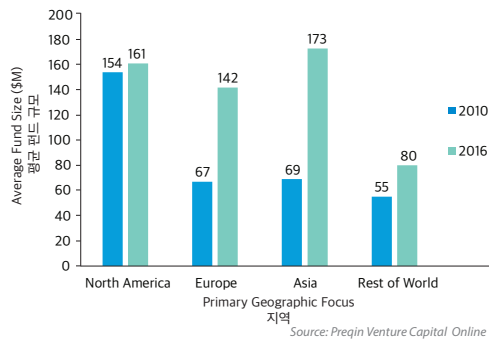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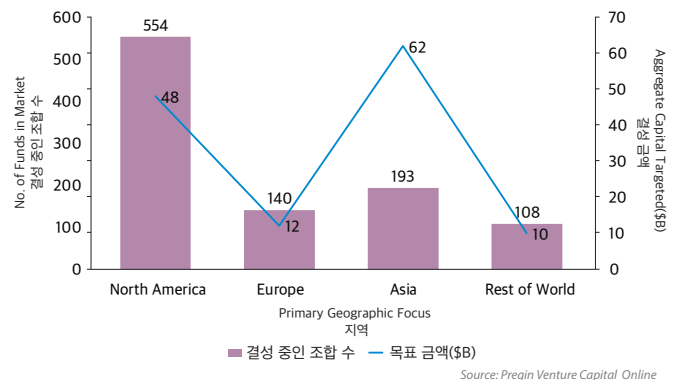


Fig. 4 : 펀드 결성 현황(2017. 4)



아시아, 특히 중국이 VC펀드의 기록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정신을 장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컸다. VC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5개의 VC펀드(Fig.5) 중 4개 펀드가 중국 펀드이다.

이들 중 가장 큰 규모의 펀드는 목표 금액 29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가 될 중국 국영 자본 벤처 투자 펀드(China State-Owned Capital Venture Investment Fund)다.

심천의 Qianhai 자유 무역 지대에 기반을 둔 이 펀드는 혁신적인 기술 및 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며 국유 기업, 특히 중앙 정부 소유의 기술 혁신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VC시장에는 421개의 신규 VC펀드(first-time VC fund)가 있으며, 총 450억 달러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신규 VC펀드 중 16개 펀드는 중국 투자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180억 달러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개 펀드는 인도 투자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결성 목표 금액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다.

북미 지역 또한 244개의 신규 VC펀드가 총 170억 달러 결성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50개의 신규 VC펀드로 총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및 북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기록이다.

VC시장의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5개의 신규 VC펀드는 Fig. 6과 같다.

(VC 포커스) 글로벌 벤처캐피탈 현황

Fig. 5 : VC펀드 규모 상위 5개 펀드(2017. 4)

펀드명	운용사	구분	목표 금액(\$B)	지역
China State-Owned Capital Venture Investment Fund	China Reform Fund Management	Venture Capital (All Stages)	29.0	Asia
Shanghai Integrated Circuit Investment Fund	Shanghai Integrated Circuit Investment Fund	Venture Capital (All Stages)	7.5	Asia
Guangxi Beibu Gulf Industrial Investment Fund	Guangxi Xijiang Venture Investment	Venture Capital (All Stages)	3.2	Asia
New Enterprise Associates 16	New Enterprise Associates	Venture Capital (All Stages)	3.0	North America
Baidu Capital	Baidu Capital	Expansion/Late Stage	3.0	Asia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Fig. 6 : 신규 VC펀드 규모 상위 5개 펀드(2017. 4)

펀드명	운용사	구분	목표 금액(\$B)	지역
Shanghai Integrated Circuit Investment Fund	Shanghai Integrated Circuit Investment Fund	Venture Capital (All Stages)	7.5	Asia
Guangxi Beibu Gulf Industrial Investment Fund	Guangxi Xijiang Venture Investment	Venture Capital (All Stages)	3.2	Asia
Baidu Capital	Baidu Capital	Expansion/Late Stage	3.0	Asia
SummitView IC Industry Fund	Summitview Capital	Venture Capital (All Stages)	1.6	Asia
Banma Capital	Zebra Investment	Venture Capital (All Stages)	1.0	Asia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투자

2017년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2,779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 투자 금액은 3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1분기 총 거래 금액(310억 달러)은 2016년 3분기(290억 달러), 4분기(260억 달러) 대비 증가하였다(Fig. 7).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는 2015년과 2016년 초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

2016년 말부터 VC 활동이 북미 중심에서 중화권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추이는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기록을 보면, 중화권은 482건의 투자로 전 세계 거래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7~2014년의 평균 수치인 8%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북미 지역 VC 투자 건수는 전체 거래의 40%를 차지하며, 2007~2014년의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럽의 1분기 투자는 전체 거래의 20%를 차지하며, 2016년 19%보다 증가하였다. 기타 지역으로는 인도(9%)와 이스라엘(2%)이 올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2017년 4월까지의 투자 금액은 북미 지역이 180억 달러(47%)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중화권이 110억 달러(29%), 유럽이 36억 달러(10%, Fig. 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 4월 말 기준, 인도의 투자 금액은 올해 총 투자 금액의 8%에 해당하는 31억 달러에 달했다. 작년 인도의 총 투자 금액은 2015년 대비 53% 감소한 불과 42억 달러였다. 이러한 인도의 회복은 14억 달러 상당의 Flipkart Internet Private Limited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의 영향이 컸다.

회수

북미는 2017년 4월 말 기준 전체 글로벌 VC 회수 건수에서 60%를 차지하였고, 회수 금액에 있어서는 더 큰 비율(81%)을 기록했다(Fig.10).

북미의 벤처 투자 기업 회수는 소프트웨어(34%), 의료(19%) 및 통신 (18 %)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17년의 4월 말 기준 유럽의 회수 금액은 전체에서 8%를 차지했지만, 회수 건수에 있어서는 전체에서 17%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회수 건수로는 16%, 회수 금액으로는 전체에서 8%를 차지했다.

Fig. 7 : 전체 투자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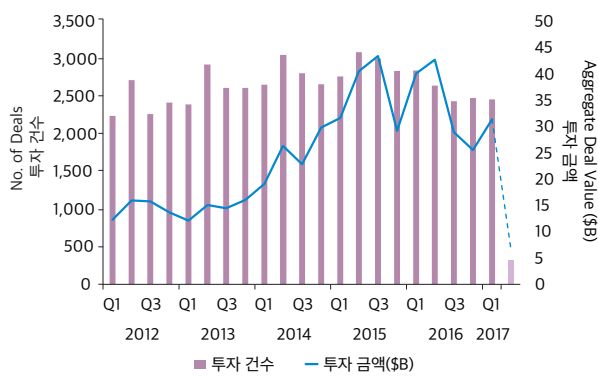


Fig. 8 : 지역별 투자 건수 및 금액(20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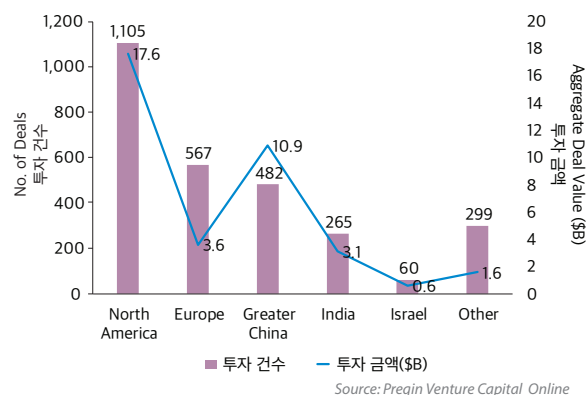


Fig. 9 : 지역별 투자 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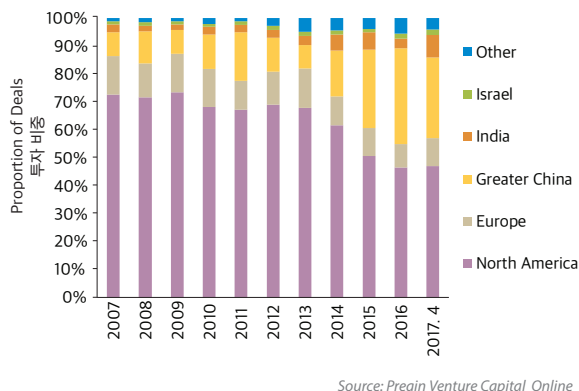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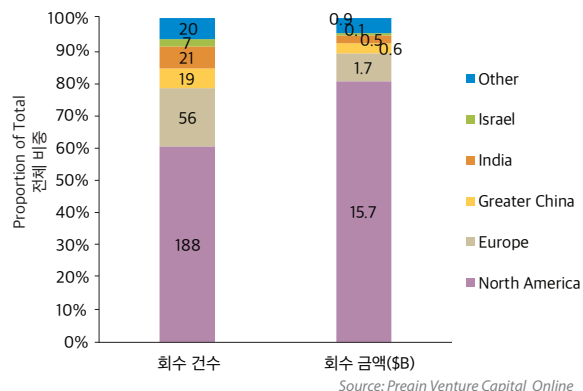


Fig. 10 : 지역별 회수 현황

Dry powder
(투자 대기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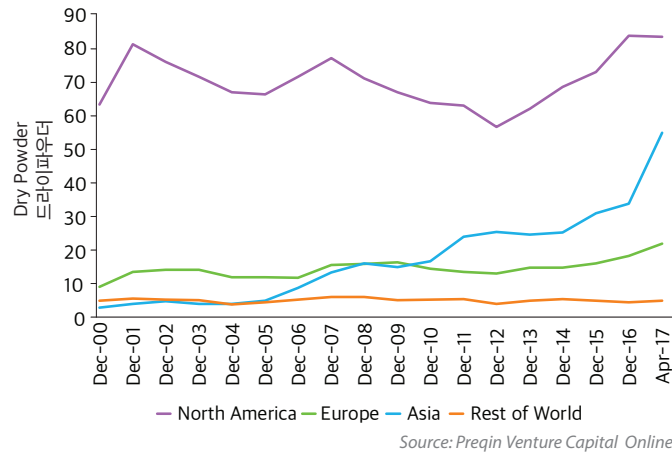
VC펀드의 기록적인 Dry powder는 2017년 투자 활동을 촉진시켰다. 2017년 4월 말 기준, VC펀드는 총 166억 달러의 Dry powd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북미 지역 펀드가 전체 Dry powder의 절반을, 아시아 지역 펀드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Dry powder는 2016년 말과 비교하여 약 1분기 만에 210억 달러 정도 크게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주로 중화권 중심)에서 Dry powder로 가장 크게 투자된 산업으로는 인터넷 및 통신 분야로, 2017년 중화권 내에서 각각 27%, 41%의 투자 비중을 차지했다.

(VC 포커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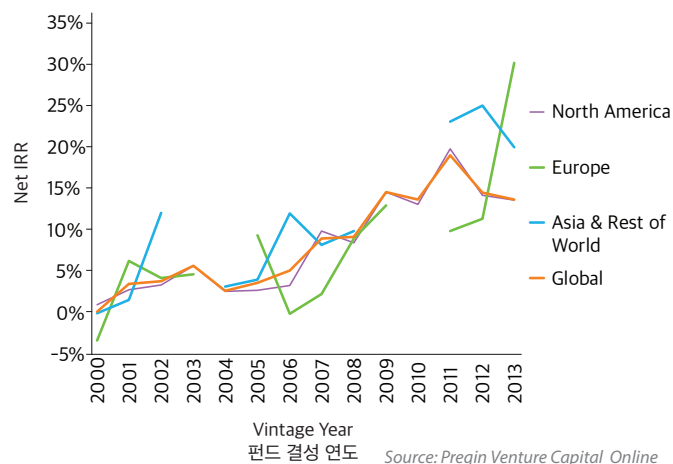
Fig. 11 : 지역별 드라이파우더(투자 대기 자금)



투자 성과

- (북미) 2000~2003년에 결성된 펀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반면, 최근 2009~2011년에 결성된 펀드는 좋은 성과를 보임
- (유럽) 북미 시장에서의 닛컴 거품 붕괴의 영향으로, 2000년 초기에 결성된 펀드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럽 지역 펀드들의 성과가 북미펀드를 능가했음
-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좋은 실적을 낸 2002년, 2006년, 2011년, 2012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실적을 능가하여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Fig. 12 : 지역별 Median Net IRR



전망

VC업계는 2016년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7년 초반에 반등하며 올해 펀드 결성 및 투자 회복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2017년 현재까지 회수시장 또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 세계적인 high-profile 회수 증가는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3 : 북미 투자 실적 상위 5개 펀드(전체 결성 연도)

펀드명	운용사	펀드 결성 연도	펀드 규모(\$M)	구분	Net IRR(%)	보고일자
Column Group II	The Column Group	2014	322 USD	Early Stage	527.8	30-Sep-16
Matrix Partners V	Matrix Partners	1998	200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514.3	31-Mar-17
Crescendo I	Crescendo Ventures	1995	13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447.4	31-Mar-17
Pittsford Ventures Ivc (Maple Leaf)	Pittsford Ventures Management	1991	1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346.4	31-Mar-17
Benchmark Capital Partners II	Benchmark Capital	1997	125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267.8	31-Mar-17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Fig. 14 : 유럽 투자 실적 상위 5개 펀드(전체 결성 연도)

펀드명	운용사	펀드 결성 연도	펀드 규모(\$M)	구분	Net IRR(%)	보고일자
Swedestart II	CapMan - Other Investment Areas	1997	26 EUR	Venture Capital (All Stages)	168.5	31-Mar-17
Seaya Ventures Fund	Seaya Ventures	2013	57 EUR	Venture Capital (All Stages)	81.8	31-Dec-16
Apax UK V	Apax Partners	1995	164 GBP	Venture Capital (All Stages)	76.2	31-Mar-17
DN Capital - Global Venture Capital III	DN Capital	2012	144 EUR	Venture Capital (All Stages)	72.9	30-Sep-16
Apax Partners - Germany II	Apax Partners	1997	133 EUR	Venture Capital (All Stages)	63.1	31-Mar-17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Fig. 15 : 아시아 투자 실적 상위 5개 펀드(전체 결성 연도)

펀드명	운용사	펀드 결성 연도	펀드 규모(\$M)	구분	Net IRR(%)	보고일자
Vietnam Equity Fund	Finansa Fund Management	2005	15 USD	Expansion/Late Stage	104.9	31-Mar-17
CSK-VC bio-incubation	Whiz Partners	1999	3,300 JPY	Venture Capital (All Stages)	65.7	31-Mar-17
USIT I	JAFCO (Japan)	1994	7,000 JPY	Venture Capital (All Stages)	63.8	31-Mar-17
USIT II	JAFCO (Japan)	1997	10,300 JPY	Venture Capital (All Stages)	63.7	31-Mar-17
Vickers Venture Fund IV	Vickers Venture Partners	2012	81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57.7	31-Dec-16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Fig. 16 : 기타 지역 투자 실적 상위 5개 펀드(전체 결성 연도)

펀드명	운용사	펀드 결성 연도	펀드 규모(\$M)	구분	지역	Net IRR (%)	보고일자
AMWIN Innovation Fund	CHAMP Ventures	1998	42 AUD	Early Stage	Australasia	1015.7	31-Dec-14
Nitzanim Fund (1993) Ltd.	Infinity Group	1993	20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Middle East & Israel	121.4	31-Mar-17
Gililot Capital Partners I	Gililot Capital Partners	2011	30 USD	Early Stage	Middle East & Israel	89.6	30-Sep-16
CRCM-Managed Account (Farallon Capital Mgt)	CRCM Venture Capital	2004	32 USD	Early Stage	Diversified Multi-Regional	86.0	31-Mar-15
Periscope Fund I	Evergreen Partners	1997	38 USD	Venture Capital (All Stages)	Middle East & Israel	81.5	31-Mar-17

Source: Preqin Venture Capital Online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5월 수시 출자사업 최종 선정 결과, 선정 조합수 3개, 최소 결성 규모 1,650억 원, 모태 출자액 33억 8,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세컨더리 분야의 결성 규모는 200억 원, 출자액은 20억 원으로 케이앤투자파트너스와 IBK캐피탈이 선정되었다. 한국벤처투자 조합 결성 목적 분야는 결성 규모가 각각 950억 원, 500억 원이고 출자액은 4억 원, 9억 8,000만 원이며,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서울투자파트너스가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2017년 교육계정 출자사업 접수 결과 신청 조합수 12개, 총 결성 금액 432억 원, 출자 요청액 302.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5월 중순에 계획했던 2차 정기 출자사업 일정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끝나고 벤처정책과 관련한 방향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최소한 6월 중순은 지나야 출자사업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가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해 운용키로 한 '미래환경산업 펀드'는 6월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펀드를 결성한다. 미래환경 산업펀드는 환경부가 관리 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에 출자하고, 운용사가 민간 자금 조달, 기업과 프로젝트 직접 투자를 맡는 모태펀드 형태로, 별도 환경계정을 신설해 펀드 결성 총액의 60% 이상을 환경기업과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한국벤처투자에 200억 원을 출자(정부 출자 비율 60% 예상)했으며, 2021년까지 총 2,500억 원 규모로 출자를 늘릴 예정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글로벌 헬스케어펀드에 약 1,000억 원을 출자했다. 이 펀드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 지역의 헬스케어 분야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근 하이랜드캐피탈매니지먼트코리아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공동 조성한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이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로 참여했으며, 펀드 규모는 1억 4,700만 달러(약 1,670억 원)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반도체성장펀드 창업 단계 출자사업과 관련한 2차 기술 심사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지유투자를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한편,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신산업육성펀드 중소·벤처펀드의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각각 150억 원을 출자받아 5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를 결성한 다. 선정된 운용사는 오는 10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번 정기 출자에서 유일하게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농식품 세컨더리펀드를 재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농금원 측은 일단 펀드의 총액 규정을 보완하지 않고 농식품 세컨더리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수시 출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다시 GP 선정에 실패할 경우엔 펀드 규모 조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에너지산업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자펀드 위탁운용사의 1차 숏리스트로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총 10개사가 도전장을 내민 'e-신산업 초기 기업 육성펀드' 부문은 4개 업체(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MG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가 숏리스트에 포함됐다. 총 7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e-신산업 성장 기업 육성 펀드' 부문에서는 3개 업체(송현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트루벤인베스트먼트(Co-GP), 하나금융투자-스톤브릿지캐피탈(Co-GP))가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아직 2차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현장 실사 및 구술 심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GP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지난 5월 25일 마감한 2017년 사모(PE)·벤처캐피탈(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제안서 접수 결과, 총 50개 운용사가 신청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PE펀드에 27개사가 신청,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VC펀드에 신청한 곳은 23개사로 경쟁률은 3.3대 1이다. 이번 PE·VC 펀드 출자사업은 사업 재편과 확장,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모험자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미래성장 대비, 시장 트렌드와 수요에 따른 적시·적소 자금 공급 등을 위해 기획됐다.

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100억 원을 출자 약정해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위탁운용사는 서류와 구술 심사,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총 13개 이내의 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9월 이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